

慶北地方 近代 韓屋의 유형과 성격

-배치 및 평면유형을 중심으로-

이 호열

(밀양산업대학교 부교수)

1. 序論

조선후기이후 나타난 근대적 요인 즉 생산부문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싹과 실학사상과 문학작품 등에서 일부 보인 근대 지향적인¹⁾ 경향은 오래전부터 역사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꾸준히 성장해 온 근대 지향적인 경향들이 보수적인 정치세력에 의해 싹이 꺾이면서 근대 산업사회로의 이행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20세기초 주변 열강들에 의해 식민지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격동기에서 19세기말 서구 열강에 의한 타율적인 개항은 서구 문물들이 직접 유입되는 계기가 되어 정치·사회·문화의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개항과 함께 이 땅에 유입된 외래 주거문화인 洋式 및 日式住

居는 전통한옥²⁾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주거양식과 건축기술과 인력, 재료들이 유입되면서 한옥의 변모는 외형뿐만 아니라 배치와 평면 등의 공간구성에도 나타났다. 경북지방의 근대한옥의 경우 전통한옥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새로 유입된 재료와 기술을 적절하게 구사하여 내외 공간구성과 이용방식, 입면 등에서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 글은 외래 문물과 직접 접촉하면서 근대화가 진행되던 개항기(1876) 이후 일제 강점기(1910-1945년)에 건축된 상류계층의 전통주택을 “근대 한옥”으로 규정하고, 이 시기 경북지방 근대 한옥의 배치형태와 평면유형의 변화경향을 조사 연구했다. 연구의 목적은 무엇보다 경북지방 근대 한옥의 공간적인 특성과 의미를 살피는데 있으며, 아울러 비지정문화재로 취급되어 급격하게 철거 및 훼손되고 있는 근대한옥에 대한 자료발굴과 수집에 부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선정한 경북지방 근대한옥 17戶를 대상으로 현장 실측조사³⁾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했다.

이 논문은 1992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우리역사에서 근대를 어디서부터 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실학이 일어난 18세기경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외국 자본주의 세력과 최초로 만나는 이른바 문호가 개방되는 병자수호조약 체결로부터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밖에 갑신정변 또는 갑오개혁을 본격적인 근대화의 시발로 보기도 한다.(강만길, 한국근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p.9)

2)이 글에서 ‘한옥’이라 함은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생산된 주거건축을 뜻하는 협의의 개념이다.

표.1 분석대상 근대한옥

건물명	건축연대	소재지
文顯德 가옥	철종대	문경군 산북면 대상리 32
괴헌고택	1872년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126
奉化權進士宅	1880년경	봉화군 춘양면 선양리 196
長水黃氏宗宅	19세기말	문경군 산북면 대하리 460
仲松齋 故宅	1899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 462-1
金和燁 가옥	1910년대	대구시 북구 조야동 127
星州 中梅宅	1903-1915년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856
蔡孝基 가옥	1904년	대구시 동구 미대동 236
百弗古宅	1905년, 사랑채	대구시 동구 둔산동 386
文丕基 가옥	1910년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1동
松阜軒古宅	1863-1920년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202
安東 五柳軒	1920년, 사랑채	안동군 임동면 지례동 357
高在庸 가옥	1933년	문경군 산양면 송죽리 30
鄭守烈 가옥	1933년	경산시 옥곡동 679
靑松照月宅	1933년	청송군 파천면 덕천동 178
文瑾萬 가옥	1936년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1동
金魯鎭 가옥	일제시대	안동군 풍산읍 상리3동 193

2.近代韓屋을 형성한 歷史的 背景

2-1. 政治 社會的 背景

17-8세기 이래의 농업 생산력의 증대는 체제로서 실학이 나타났다. 사회 변화의 토대가 되었고, 상업 자본의 성장과 부의 축적은 신분 상승을 가져와 양반 사회의 신분 구조는 붕괴되어 갔다. 유교적 양반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이 이러한 변동에 의해 드러나자 근본적인 사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사상체계로서 實學이 나타났다.

실학사상가들은 서양 근대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그것을 수입하여 조선후기의 침체한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北學派

들은 서양문물을 배우고 해외 통상의 길을 터야

한다 했고 정약용도 북학론을 바탕으로한 기술개발론을 폈으며, 이규경은 문호개방론을, 최한기는 서양문화수입론을 제시했다⁴⁾. 실학자들의 사상과 주장은 보수정치세력에 의해 거부되었으며, 이들도 탄압을 받았다. 결국 근대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할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또한 천주교의 전래와 동학의 발생은 전통 사회의 교학적 질서와 이념뿐만 아니라 인간 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경지를 모색케 했다. 1870년 전반기에는 개화사상이 등장하였으며, 이 사상은 1880년대에서 1890년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이 주요 정책을 추진하던 기본 방향이 되었다. 특히 근대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공업전습소 등 각종 기술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이처럼 개화기는 새로운 사상과 근대적 기술의 도입이 활발히 추진되던 시기였으나, 그것은 국내여건의 不備와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크게 제약받았다. 그러나 개항 이후 본격적으로 수용된 사회진화론을 비롯한

표.2 역사적 사건(1876-1945)

1876년	강화도조약, 부산개항
1879년	원산개항
1881년	신사유람단 귀국
1883년	인천개항
1884년	갑신정변
1894년	갑오경장- 가사규제철폐 동학농민혁명(斥洋斥倭 주장)
1900년	경인철도 개통, 각지에서 民亂발생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1905년	통감부설치, 경부철도 개통
1908년	동양척식회사 설립(日人 移民추진)
1910년	한일합방, 조선총독부설치
1919년	3.1독립운동, 상해 임시정부 수립 문화정책 공표
1940년	皇國臣民化 運動 본격화
1945년	일본 무조건 항복, 독립

3)실측조사는 92년 7월 15일부터 22일, 8월 17일부터 23일 그리고 93년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했다.

4)강만길, 앞책, p.278.

각종 사상은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혁신시켰으며, 이 시기 도입된 근대 과학기술은 민중들의 사회·경제생활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했다.

조선왕조를 계승한 대한제국의 국권회복운동과 의병들의 항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1910년 日帝에 국권을 빼앗겨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헌병경찰정치로 한국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을 확립한 日帝는 토지조사 등을 통해 경제적 침탈을 가했다. 토지조사에도 불구하고 봉건적 농업체제는 그대로 지속되었다. 일제는 3.1운동후 헌병경찰정치를 지양하고 문화정치를 표방하였으나 1936년에 들어와 소위 內鮮一體를 주장하며 한민족의 전통과 정신말살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제 지배하의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주권을 상실한 시대였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봉건적인 잔재가 일소되지 못한 시대였다.

2-2. 建築的 背景

(1) 開化期 住意識과 日帝下 生活 改善運動

1) 開化期 住意識

開化期の 住宅論은 위생사상이 특징이었다. 건강과 질병을 들어 居室의 일조 통풍이 강조되었다. 개화파들은 위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독립신문에서 “여름에 음습한 냄새가 만히 나는 곳은 북편 모퉁이에 잇는 방이요 사람의 병도 흔히 음습하고 어두운 방 속으로 좃차 만히 나는지라”⁵⁾한 것으로 볼 때 유치하나마 채광과 환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西歐人의 個性的이며 단일 機能의 주거 공간과 그들의 개성적인 住生活이 처음으로 소개되고 권장되었다. 외국을 견문하고 돌아온 유길준은 “찬방은 음식 烹飪하는 處며 洗室은 의복 세탁하는 所며...客室은 朋友 접대

와 친척 회화하는 處소며...가족의 朝夕 會食하는 儀貌는 大床에 의자로 環하고 부자·형제·부부가 열좌하여 ...”라고 하면서 방의 기능별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주부의 家事勞動 輕減에 결부되어 부엌개량론이나 전기·가스공급론에까지 이르지 못했으며, 食寢分離論도 구체화되지 않았다.⁶⁾

개화파를 중심으로 주거내 위생이 강조되고, 일조와 통풍에 대한 관심과 외국 주거공간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日帝下 生活 改善運動

192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주택문제는 量의 문제와 함께 質의 문제 즉, 생활개선과 결부된 주거환경의 개선논의에서 출발했다. 개선운동에서 나온 의견에는 “조선식 주택을 개량해 햇빛과 바람이 잘 들어오고 청결하도록 하자”(고원훈), 재래부엌의 문제점으로 비능률성과 식사준비에 노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930년대는 “안방 벽장을 없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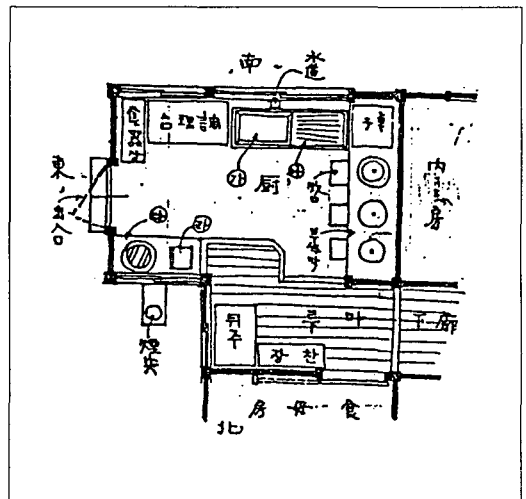


그림.1 부엌개량 개선안(박길용)

안방과 부엌을 통하게, “찬 마루를 설치하여

5) 독립신문, 1899.9.26일(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87, p.238.)

6) 김순일, 『開化期 住意識에 관한 연구』, 『건축』, 제26권 106호, 대한건축학회, 1982, 27-31쪽

6) 김순일, 『開化期 住意識에 관한 연구』, 『건축』, 제26권 106호, 대한건축학회, 1982, 27-31쪽

7) 연세대 주생활학과 대학원동문회, 한국주택자료집, 1995.2, p.64.

음식 조리와 상보는 일을 할 것(安缺禮)”이라든가 “찬장과 뒤주 등은 찬방으로 가져가자(宋今旋)” 등과 같은 부엌과 안방의 기능적 연결이나 부엌에 찬마루나 찬방을 설치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도 “마루 앞에 유리밀창, 분합문을 만들어 겨울에 방풍이 되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하자(方信策)” 의견과 “부엌의 아궁이를 함실아궁이로 만들어 뚜껑을 덮고, 방과문으로 봉한 후 부엌바닥에 마루를 놓고 사용하자는(韓小濟)” 등의 여러 주장들이 제시되기도 했다.⁷⁾ 이러한 제논의에 따른 주의식의 변화는 지방에까지 확산되어 부엌 및 주택 개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2) 日帝下의 住宅 改良運動과 住宅類型

1) 日帝下의 住宅 改良運動

일제하 주택 개량 운동은 크게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두 시기로 나뉘 볼 수 있다. 1920년대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주택문제는 생활 개선과 결부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였다. 주로 비전문인이 자신의 거주 경험에 비추어 생활을 개선해야 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당시의 여론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특히 김유방은 “문화생활과 주택”이란 논문을 통해 이 분야의 논의를 이끌어 나갔으며, 그 밖의 사람들도 일조와 인동간격, 채광, 실내 탄산가스 농도 등에 관심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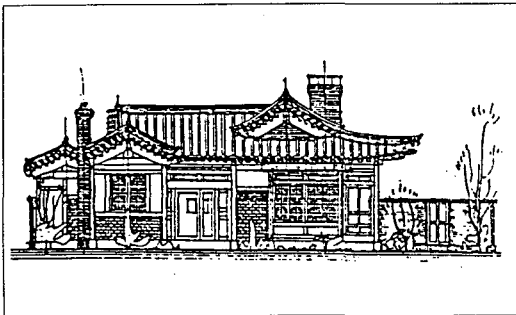


그림 2 박길룡의 조선식 주택 입면도

7) 연세대 주생활학과 대학원동문회, 한국주택자료집, 1995.2, p.64.

8) 김란기·윤도근, 일제의 주거유산과 미군정기 주택사정고찰(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권5호, 1987.10, p.64.

후기인 1930년대에는 건축가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택 개량이 논의되었다. 실제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실제 주택에 반영되기도 했다. 박길룡은 건축가로서는 최초로 ‘유행성의 소위 문화 주택’ (1930년 9월, 조선일보)이란 논문을 발표하였으며⁸⁾, 그후에도 “부엌에 대하여”, “재래식 住家 개선에 대해”, ‘재래식 온돌 구조’, ‘온돌 개선에 관하여’ 등을 통해 조선식 주택 개량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그림.1,2) 김윤기와 박동진은 각각 ‘건강 주택 1안’ (1930년 9월, 동아일보) 박동진은 ‘우리 주택에 관하여’ (1931년 3월 14일부터 연 14회)이란 글에서 우리 주택의 배치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안방의 불리한 위치, 건넌방 그리고 통로로서의 마루방 등을 개선하여 서양의 배란다 형식으로 거실화해 독립된 방으로 사용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다.

2) 日帝下의 住宅類型

日帝下의 주택 유형으로는 洋式住宅과, 절충식(개량식)주택, 개량 한옥, 문화 주택, 공동주택, 營團住宅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洋式住宅은 1910년대 부호들의 저택으로 등장한 것이다. 윤현궁의 이준씨저(1912)와 옥인동 윤덕영씨 별장(1917) 등이 그것이다.

절충식 주택(개량 주택)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등장한 주택으로, 대개 전통적인 주택에 외래 양식의 일부를 채용한 韓·日 및 韓·洋의 절충식 주택 유형이 있었다. 이러한 절충식 주택의 등장은 생활 개선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주택 개량의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절충식 주택은 1920년대 초반까지 그 모습을 보이다가 1925년경 이후부터 文化 住宅으로 변형되었다.

개량 한옥은 1920년 전후한 시기에 주택업자들에게 의해 매우 활발하게 건축되었다. 이들 개량 한옥은 당시의 주택 개량 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외관에서 재래 형식을 답습하였다. 그러면서도 평면 구성에서 마루 앞에 유리문을 달

8) 김란기·윤도근, 일제의 주거유산과 미군정기 주택사정고찰(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권5호, 1987.10, p.64.

아 마루를 거실화하고, 부엌에 찬마루를 두고, 대문채 혹은 살림채 내부에 변소를 설치하는 등의 새로운 건축적 특징을 보였다. 9)

文化 住宅은 본질적으로 전통한옥의 개선이 아닌 외래식의 혼성으로 1920년대 중반에 나타나 1930년대에 많이 건축되었다. 즉 전통한옥에 西洋式이나 日式을 가미하거나 西洋式이나 日式에 朝鮮式을 가미한 것으로 전적으로 서양식이나 일식을 모방한 형식이었다. 평면 형태는 식당·욕실·변소 등의 시설을 내부에 갖춘 집중식 평면구성으로 생활의 중심이 대청에서 거실(응접실)로 바뀌고 각 공간은 기능별로 세분화되었다. 형태적인 면에서는 절충주의적 특성과 근대 기능주의 특성을 함께 나타냈으며 재료로는 철근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유리등이 사용되었다.

3. 慶北地方 近代韓屋의 실증적 고찰

2.1 日帝時期 以前の 近代韓屋

(1)안채·사랑채 一體形

1)文顯德氏 家屋(S-1,철종 대)10)

정침은 ‘ㄷ자’형으로 사랑채와 안채가 결합된 형태이다. 안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온돌방을 앞뒤로 배치하였다. 대청 右側에는 옷방과 2칸통의 안방과 부엌이 남향하고 있으며, 대청 뒤에는 쪽마루를 설치하여 후원과 연결했다. 안채 좌측에 연결된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1.5칸으로 남향한다. 사랑방과 마루를 양끝에 두고 앞쪽에 뒷마루를 배설했다. 사랑채 뒤쪽에는 길게 벽장을 시설하여 수장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2)大邱 蔡孝基氏 家屋(S-2,1904년)

大邱 富豪 鄭在學이 건축한 것으로, 정면 5칸 측면 4칸의 ‘ㄷ자’형 건물이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남녀의 생활공간이 몸채 1棟에 통합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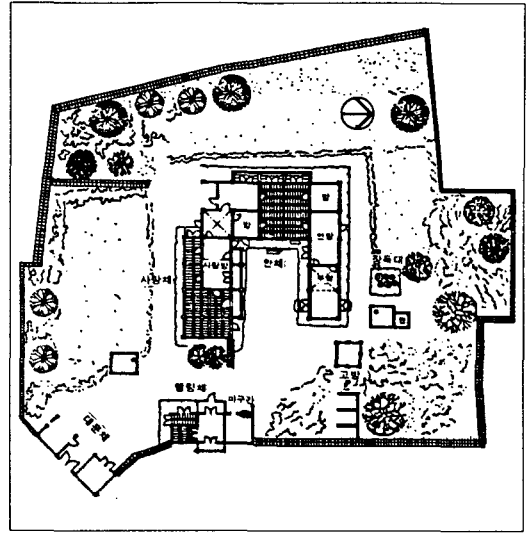


그림.3 문현덕 가옥 배치평면도

형식으로 대청을 가운데 두고 왼편을 여성공간, 오른편을 남성공간으로 구성했다. 사랑방의 뒤쪽에 곡물을 보관하는 두지와 뒤주를 두었다. 사랑채의 누마루는 주인의 신분을 상징한다. 내부공간은 기능적이고 짜임새 있으며, 큰방과 사랑방 안에는 4짝 미서기를 시설하여 공간의 轉用性和 기능성을 높였다. 대청 뒤쪽의 後退는 복열화의 경향을 보이며, 부엌 위에는 큰 다락을 만들어 수장공간으로 쓰고 있다. 이 같은 집약적인 공간구성은 가사운영이 직계가족 중심으로 바뀌면서 생활의 합리성과 편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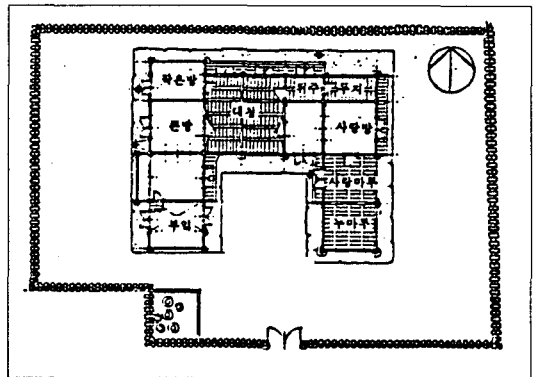


그림.4 채효기 가옥 배치평면도

을 추구하는 근대적 사고가 반영되었기 때문이

9)연세대 주생활학과 대학원동창회, 한국주택자료집, 1995.2,p.40-45

10)경상북도, 영남대학교,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IV』.

1987,409-412쪽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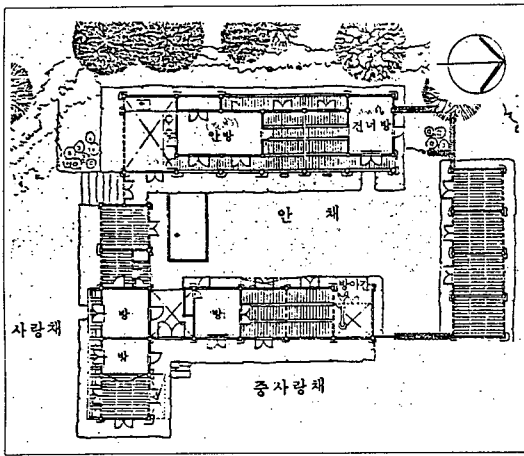


그림 5 영천 괴헌 고택 배치평면도

(2) 안채·사랑채 別棟形 - '튼口자'형 한옥
1)永川 괴헌고택(S-3, 1872년)

중사랑채와 안채는 東向, 중사랑채와 '나자'형으로 접속된 사랑채는 남향하고 있다. 안마당 북측에 고방채가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튼口자'형을 이룬다. 안채는 일반적인 남부형의 평면으로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부엌과 큰방, 우측에 머릿방(건넌방)이 놓였다.

사랑채는南向한 큰 사랑채와 東向한 중사랑채가 中門間을 접점으로 연결되어 '나자'형을 이루었다. 큰사랑채는 사랑방을 중심으로 좌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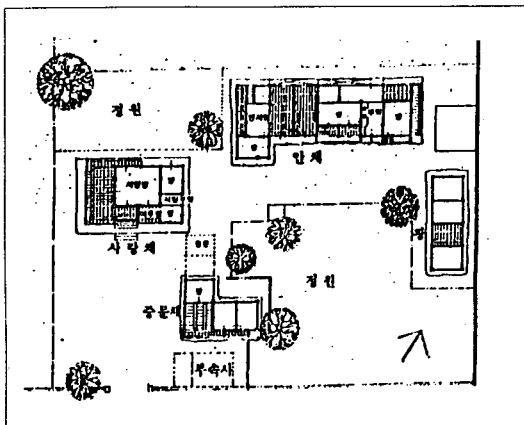


그림 6 장수황씨 종택 배치평면도

끝에 壁龕이 있는 사랑마루방을 배치하여 3면에 板門을 달아 놓았고, 사랑방의 좌측에는 장방을 두어 사랑방과 앞마당에서 출입하게 했다. 중사랑채는 중문과 중사랑방, 고방, 방앗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중문을 통해 안마당으로 진입한다.

2)閔慶 長水黃氏 宗宅¹¹⁾(S-4, 19세기말)

'一자'형의 안채, 사랑채, 광 등과 '나자'형 중문채가 別棟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정면 7칸, 측면 2칸으로, 안대청 우측에 안방과 부엌을 두고 부엌 우측에 온돌방과 마루를 앞뒤로 배치했다. 마당으로 돌출한 부엌 좌측방은 내외담 처럼 사랑채에서 안채로 향하는 외부인의 시선을 차폐하는 기능도 한다. 전후퇴의 폭이 넓고 발달하였으며, 평면 구성에 합리적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안채 부엌을 중심으로 한 집약적인 室 구성이 돋보인다. 안대청 좌측부는 안사랑으로 크고 작은 온돌방과 뒷마루를 두어 사랑채와 연결했다.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겹집으로 좌우에 각각 사랑마루와 사랑방, 마루방, 뒤주를 둔 평면구성이다.

3)예천 伴松齋 故宅¹²⁾(S-5, 1899년)

'나자'형의 안채와 '一자'형의 사랑채, 고간채가 '튼口자'형으로 배치되었다.

'나자'형의 안채는 가운데 대청을 두고 좌측에 부엌과 안방, 우측에 작은 사랑방과 건넌방 그리고 건넌방 앞쪽으로 마루방과 祭廳房 각 1칸이 돌출 되어 있다. 건넌방 앞쪽으로는 마루방, 이러한 평면구성은 근대한옥에 많이 나타난다. 또한 각 방의 창문은 비교적 높은 머름중방 위에 설치되어 古態를 보이지만 출입문은 대부분 四分閤으로 개구부를 넓게 잡고 있어 근대적인 면모를 보인다.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1.5칸으로 前後퇴가 발달한 평면형이다. 우측으로 넓은 마루방을 두고 그 오른쪽에 동쪽사랑방, 왼편에 사랑

11)장석하,경북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199012.15,p.45-49

12)김일진,경북 문화재지정 조사보고서,1992.4.11p.2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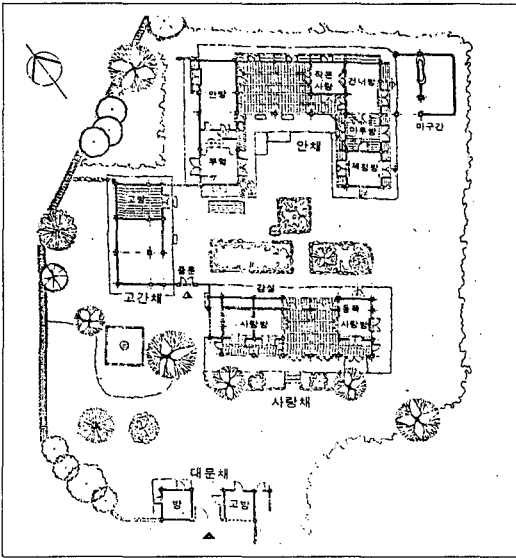


그림.7 예천 반송재 고택 배치평면도

방을 배설했다. 사랑방 北壁에는 반침을 만들어 龕室으로 사용하고 있다. 각 방의 창문은 바깥에 쌍여닫이 세살창이 달리고, 그 다음에 미닫이 범살창, 제일 안쪽의 창두겹 안에 다시 갑창을 달아 三重窓으로 꾸며 놓았다. 이는 실내환경을 고려한 결과이다.

대개 경북 북부지방의 'ㄱ자형' 전통한옥에서는 앞채의 중앙부 즉 사랑채와 아랫사랑(또는 행랑채) 사이에 중문이 놓이는 경우가 많다. 사랑채가 'ㄷ자형'의 안채 앞에 놓인 '튼ㄱ자'형의 배치에서도 대개 'ㄱ자'형과 같이 앞채의 중앙부에 中門이 위치한다. 그러나 190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지어진 '튼ㄱ자'형 한옥에서는 사랑채의 좌측 또는 우측에 中門이 설치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같은 경향을 이 집에서도 볼 수 있다.

4) 大邱 金和燁씨 家屋(S-6, 1900연초)

대문채·안채·중사랑채가 '튼 ㄱ자형'을 이룬다. 안채는 가운데 큰 대청을 두고 그 좌우에 온돌방이 대청으로 배설되었다. 前退에 길게 개방된 뒷마루를 시설하고 유리창을 달았다. 또한 室面積 확장을 위해 後退를 모두 방이나 뒷마루로 구성하였다. 부엌 앞 前退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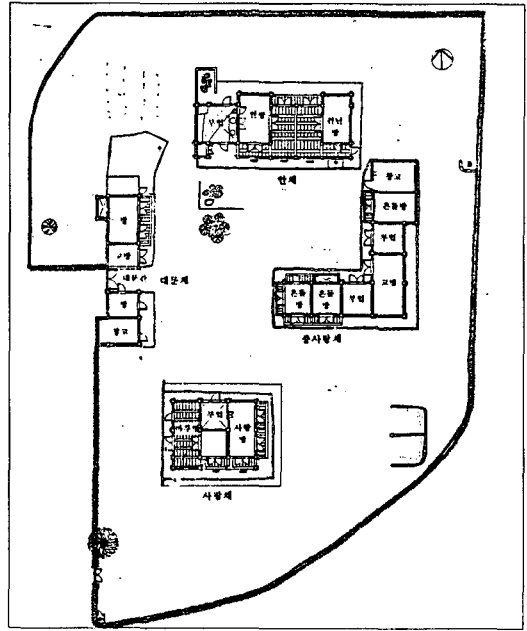


그림.8 대구 김화엽 가옥 배치평면도

작은 수장 시설을 벽에 붙여 만들고 부엌에 관련된 물품을 보관했다.

사랑채는 정면 3칸·측면 2칸 半의 겹집으로 복열화된 평면을 보여준다. 좌측에 누마루 형식의 마루방을 두고, 우측에 사랑부엌과 사랑방을 배설했다. 이 집은 20세기초의 근대한옥으로 중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평면 및 입면구성 등에서 시대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수작이었으나 1994년에 철거되었다.

5) 星州 수성리 中梅宅(S-7, 1903~15년)

경북 민속자료 제86호로, 안채·사랑채·고방채·대문채·중문채 등 5棟으로 이루어졌다. 1903년에 안채와 사랑채·대문채, 1911년에 고방채, 1915년에 안대문채가 각각 건축되었다. 안채는 2칸 안대청을 가운데 두고 좌측에 안방, 부엌, 찬방을 'ㄱ자'로 구성하고, 우측에 가운데방, 갓방, 작은부엌을 '一자'로 배열한 'ㄷ자'형의 독특한 평면형태이다. 특히 찬방 부분은 '튼ㄱ자'형 주택의 'ㄱ자'형 안방 좌측에 찬방이 돌출한 변형이다. 찬방은 앞마당을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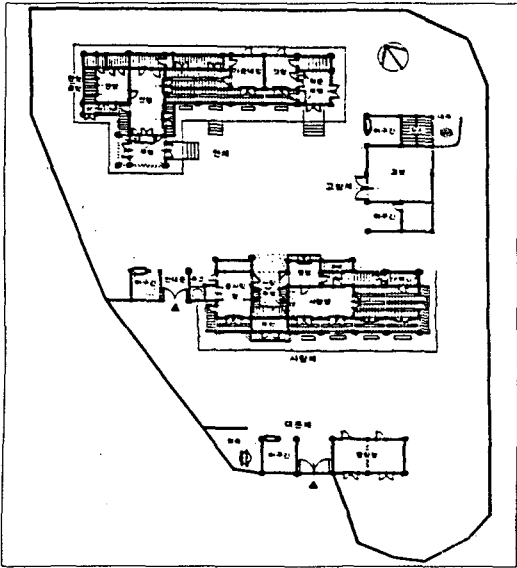


그림.9 성주 수성리 중매덕 배치평면도

으로 찬방과 뒷마루·안방과 뒷마루, 부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사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합리적이고 집약적인 家事運營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안대청과 가운데방 및 갓방 앞의 뒷마루 상부를 처마마리 높이에 맞추어 판자로 평반자로 구성한 것도 前時期 한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랑채 배면에는 뒷방과 뒷마루 등이 배치되어 안마당과의 완충공간을 형성하였다. 사랑마루방의 우측 끝간 배면에는 半間 크기의 壁龕을 설치함으로써 사당을 별도로 두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사랑부엌의 경우 좌측에 半間 크기의 중사랑, 前面에 半間 크기의 책방을 놓여 안마당 쪽으로만 개방했다. 前時期에 건축된 같은 배치형태의 사랑채에서는 사랑부엌이 前後로 개방되어 안채에 출입하는 中門(間)으로 겸용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사랑부엌 前面을 폐쇄하여 부엌간의 용도로만 사용하고 중문은 사랑채의 좌측에 別設했다.

이처럼 사랑부엌의 사랑채쪽 前面이 폐쇄된 예는 백불고택 사랑채(그림.10, 1905중건) 및 봉화 권진사택(그림.11), 송고현고택(그림.15), 김중환가옥(그림.20, 1920년경, 봉화 해저1리) 사랑채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김중환가옥은 사랑부엌 前面으로 半間을 돌출 시켜 방으로 꾸며 놓은 것까지 동일한 구성을 보인다. 사랑부엌의 용도를 한정하고 중문(간)을 別設하는 사랑채 평면 구성방식은 1900년대 전후한 시기에 지어진 한옥의 큰 특징이다.¹³⁾

이밖에도 중문간 우측의 욕실 및 곡물저장, 가축의 사료, 연료의 공급 등과 같은 저장과 생산공간을 고방채와 그 배후에 있는 마당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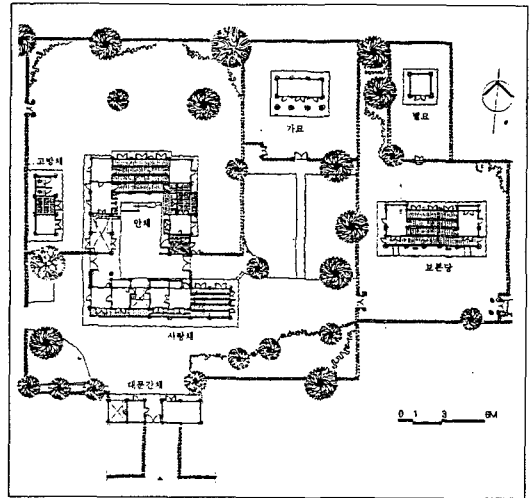


그림.10 백불고택 배치평면도

집중시켜 한 개의 기능적인 작업공간을 구성한 것에서 근대적인 경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6) 白弗古宅 사랑채(S-8, 1905년 사랑채 중건)

대구시 민속자료 1호로, 정침은 숙종 20년(1694), 사랑채는 고종 42년(1905)에 중건되었다. 'ㄷ'형의 정침과 '一'형의 사랑채가 'ㄷ'자형으로 배치되었다. 안마당으로는 안채 좌측 익사와 사랑채 배면 사이에 위치한 중문을 통해 진입한다. 이러한 진입방식은 전술한 성주 중매덕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사랑채 사랑부엌의 기능을 한정하면서 中門을 측면으로 옮겨 설치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중문(간)의 폐쇄

13) 김일진, 경북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 1989, 4, 21, p.110

로 室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랑채 정면길이가 증대되어 前時期에 비해 正面性이 강조된 과시적인 사랑채 구성이 가능했다. 사랑채는 정면 4간·측면 2간으로 복열화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

(3)안채·사랑채 別棟形- '口자'형 한옥

1)奉化 權進士宅¹⁴⁾(S-9, 1880년경)

東向한 '口자' 건물의 전면에 사랑채를 배치하였다. 사랑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사랑방과 작은 사랑방이 있으며, 작은 사랑방 앞쪽에 마루방을 설치하고 누마루처럼 꾸몄다. 대청 전후퇴의 공간을 작게 나누어 각각 툇마루 및 감실과 부속실 등을 설치하였다.

중문이 사랑채 우측 배면에 있는 이러한 형식은 전술한 근대한옥에서도 있었다. 이같은 중문 구성방식으로 사랑채의 정면성은 더욱 강조되었다. 안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상방을, 우측에 안방과 부엌뒷방, 부엌 등을 배치하였으며, 부엌 앞에 고방을 들였다. 평면구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東向 건물의 남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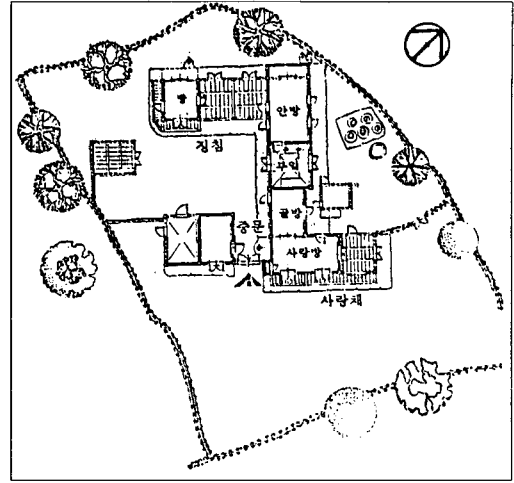


그림.12 청송 덕천동 조월택 배치평면도

열하고 전면에 툇마루를 시설하여 빛환경이 좋은 南面을 적극 활용한 점이다.

3.2 日帝下 近代韓屋

(1)안채·사랑채 一體形

1)靑松 德川洞 照月宅¹⁵⁾(S-10, 1933년)

'口자'형의 정침과 'ㄴ자'형의 사랑채가 결합하여 'ㄷ자'를 이루며, 사랑채 좌측에 2칸 부속사가 놓여 전체적으로 '튼口자'형의 배치를 보인다. 사랑채는 2칸통의 사랑방과 마루방을 두고, 사랑방 뒤쪽에 골방을 배설했다. 골방이 안채 부엌과 연결되어 안채와 사랑채를 통합하였다. 안채는 2칸 우물마루를 중심으로 좌측에 상방, 우측에 안방과 부엌을 둔 평면형이다.

2)安東 金審鎮古宅¹⁶⁾(S-11, 일제시대)

동서로 긴 대지에 남향하고 있다. 몸체의 前面 중앙에서 앞으로 토담을 내쌓아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구분하였다. 이 담에 협문을 내어 안채로 출입하는 중문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우측에 안채(부분), 좌측에 사랑채(부분)를 둔 형식으로 안채·사랑채 모두 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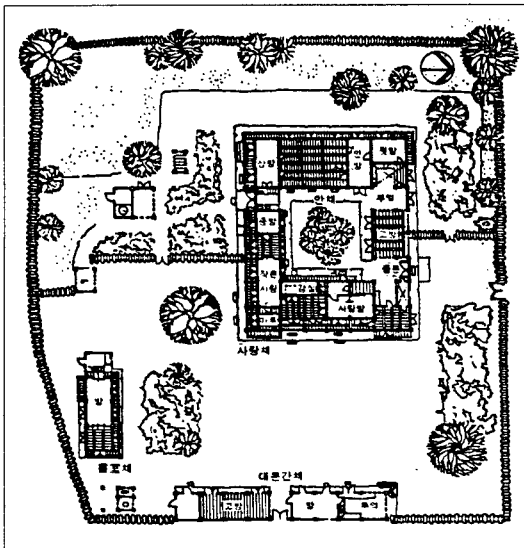


그림.11 봉화 권진사덕 배치평면도

면에 마루방, 작은 사랑방·중방, 상방 등을 배

14)김일진, 경북 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87.4.17, p.23-27
15)백영흠, 「靑松 德川洞 照月宅」, 「경북문화재 지정

15)백영흠, 「靑松 德川洞 照月宅」, 「경북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1986.9.27, p.252-257.

16)김일진, 金審鎮古宅, 「경북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1986.9.27. p.113-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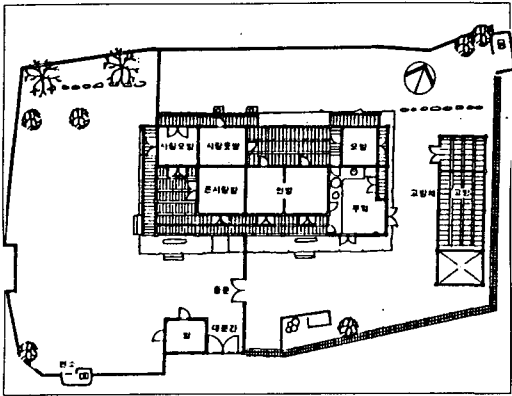


그림.13 안동 김예진 가옥 배치평면도

집이다. 안채(부분) 평면은 맨 우측에 부엌을 두고 왼편에 안방, 뒤로 모방을 연결한 형식이다. 사랑공간과의 연관되어 안방 앞쪽에 출입을 위한 좁은 뒷마루만 두고, 배면에 2간통의 안마루를 시설했다. 한棟에 남녀 생활공간을 분리하여 계획한 평면형으로 근대적인 사고가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사랑채(부분)는 '田자'형 평면으로 앞쪽에 사랑마루와 큰사랑방을 두고 배면에 사랑모방과 사랑웃방을 배설했다. 사랑마당에서 출입하기 위해 사랑 좌측과 앞쪽에 뒷마루를 시설해 놓았다. 기둥, 추녀, 서까래 등에 보이는 日式 치목수법, 안방 뒤쪽 마루방의 세살문의 日式 문살에서 日式건축의 영향을 볼 수 있다.

(2)안채·사랑채 別棟形 -'튼口자'형

1)大邸 文丞基 가옥(S-12, 1910년)

넓은 대지에 '一자형'의 안채, 아랫채, 방앗간채, 사랑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튼口자'형으로 배치되었다. 사랑채 우측에 인접한 대문간에서부터 안채와 사랑채로 출입하는 동선이 분리된다. 이러한 진입방식은 이전의 전통적인 한옥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안채의 평면형식은 남부형으로, 정면 5칸 측면 2칸이다. 대청을 가운데 두고 좌측에 안방과 부엌, 우측에 복열의 건넌방과 뒷마루를 달아냈다. 사랑채는 곁집으로 사랑방·객실·침모방·도장방 등을 전후 두 줄로 배열하였다. 안마당에 있는 적벽들로 쌓은 굴뚝은 통합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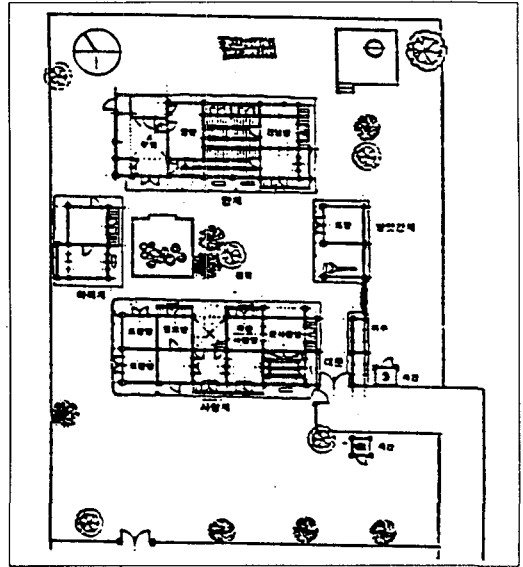


그림.14 문승기 가옥 배치평면도

연설비로 안채와 사랑채 아궁이에서 나오는 연기는 모두 이 굴뚝으로 배출된다. 새로운 설비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벽돌의 사용과 外來 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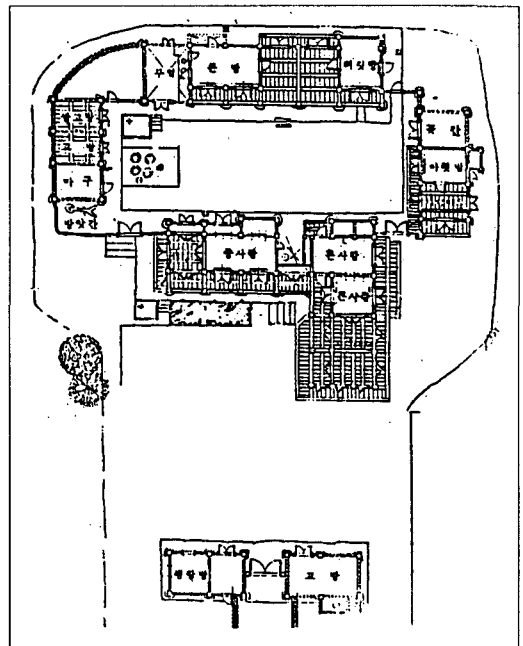


그림.15 송고현고택 배치평면도

意識의 영향을 짐작하게 한다.

2)永川 松阜軒古宅(S-13, 1920년 사랑채개축)
 ‘一자’형의 안채와 ‘ㄱ자’형의 사랑채를 앞뒤에 두고, 그 좌우에 고향채와 아랫채를 놓아 ‘튼ㄷ자’형으로 배치했다. 이들 각棟은 안채 1863년, 고향채 1914년에 건축되었으며, 사랑채는 1920년에 개축되었다. 안채는 전형적인 남부 ‘一자’형 평면구성을 보인다. 사랑채는 ‘ㄱ자’형으로 사랑부엌을 중심으로 중사랑방과 감실방이 연결되고, 우측에 큰 사랑방이 놓였다. 큰 사랑방 앞으로 온돌방과 누마루가 돌출하였다. 사랑채 배면에는 수장공간 반침·벽장·벽감 등이 시설되어 있다. 이 한옥의 특징은 사랑부엌에서 중문(간)의 기능이 분리된 점, 사랑채 뒷마루 하부 적벽돌 영롱쌓기,지붕 합각부의 적벽돌 쌓기 등에서 근대한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3)安東 五柳軒¹⁷⁾(S-14, 1920년 사랑채 중건)
 중요민속자료 184호로 ‘ㄱ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 및 중문채가 ‘튼ㄷ자’형으로 배치되었다. 안채는 1700년경의 건물이나. 사랑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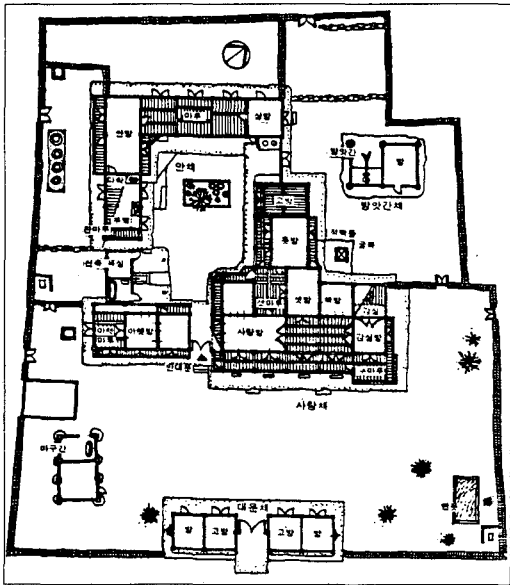


그림.16 안동 오류현 배치평면도

17)김일진, 경북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 1984. 3. 17, p.15-27

1920년경에 도목수 고평택이 지었다. 안마당으로는 사랑방 좌측의 안대문을 통해 출입한다. 이 집의 특징은 사랑채의 짜임새 있는 공간구성에 있다. 사랑채는 겹집으로 셋방 뒤에 못방과 고향이 돌출하여 ‘L형’을 이루어 규모와 격식 면에서 안채를 압도한다. 사랑채의 앞줄은 사랑방을 중심으로 사랑방·대청·감실방이 배열되고, 뒷줄은 셋방을 중심으로 마루방·셋마루·셋방·책방·감실이 배열되었다.

마루방의 용도는 사랑에서 쓰는 기물과 일용품을 넣어두는 곳이고, 셋마루는 안채로 출입하는 홀(hall)의 기능을 갖는다. 前面 및 側面에 뒷마루 또는 쪽마루를, 사랑방 아랫쪽에 벽장이 있다. 사랑채에 부속된 龕室은 昇降이 가능한 구조로서 제사를 모실 때는 내려서 사용하고, 평소에는 달아놓고 그 상부를 수장공간으로 쓴다. 정교한 창호는 일품이며, 설비면에서 책방 뒤에 적벽돌로 쌓은 굴뚝은 사랑채의 온돌방에서 나오는 연기를 모아 배출하는 시설이다.

4)慶山 鄭守烈 家屋(S-15,1934년 사랑채건축)
 안채·사랑채·대문채·고향채가 ‘튼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前後退가 발달한 정면 5칸, 측면 1칸의 ‘一자형’이다. 평면은 우측부터 부엌(1.5칸)·큰방(2칸)·마루·작은방이 나란히 배열된 형태로 남부형의 室構成 보인다. 각 방(큰방, 작은방)의 後退에는 반침을 둔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방을 넓게 쓰기 위해 벽을 헐고 가구를 들여놓았다. 지금은 안마루 前面이 개방되어 있으나, 본래는 안마루와 뒷마루 사이에 미서기 유리문을 달고, 그 위에 환기를 위한 유리 高窓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옥에서 마루가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실내 居室化하는 발전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지붕의 박공벽을 적벽돌로 쌓았다.

사랑채는 정면 4칸, 측면 1.5칸의 ‘一자형’으로, 1934년에 건축된 것이다. 사랑채는 안채와 마찬가지로 前後退가 발달되어 復列化의 경향을 보여준다. 前後退間은 반침 또는 뒷마루로 이용되며, 우측 끝방은 前退 끝까지 室面積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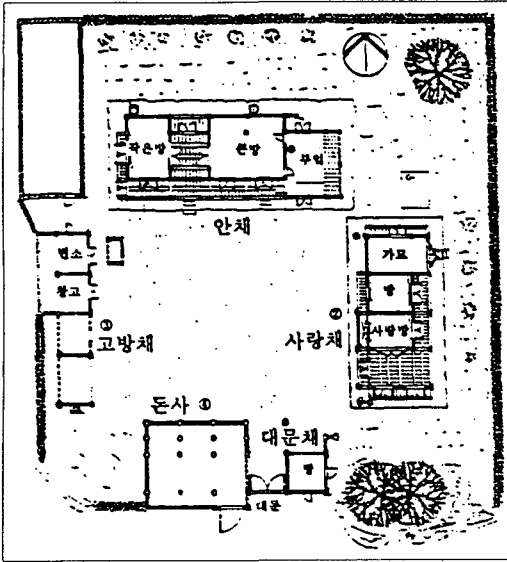


그림.17 경산 정수열 가옥 배치평면도

확장하여 連接한 두 방보다 큰 면적을 이룬다.

5) 間慶 高在庸 家屋¹⁸⁾(S-16, 1933년)

안채와 사랑채가 別廓의 대지에 배치되어 있다. 대문채와 사랑채는 南向하며, 사랑채 뒤에는 東向한 안채와 南向한 고방채가 안마당을 가운데 두고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ㄷ자’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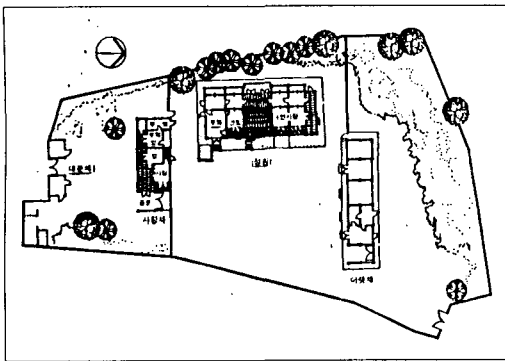


그림.18 문경 고재용 가옥 배치평면도

18)경상북도,영남대학교,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Ⅳ』, 1987.12,p.396-398.

19)마당은 분리형과 일반형, 미분화형으로 구분된다. 분리형은 마당이 기능별로 다양하게 세분되어 있고 내외간의 장소구분이 명확하다. 일반형은 조선시대 중상류 주거의 가장 보편적인 마당형식으로, 마당은 사랑마당과 안마당으

배치형태를 이룬다.

사랑채 우측간에 놓인 中門을 통과하면 안마당이 나온다. 안채는 정면 6間半, 측면 2間 규모의 곽집으로, 중앙에 2간 폭의 마루를 두고 좌측에 안방과 부엌, 우측에 안사랑을 둔 형태로 平面分化가 잘 되어있다. 모든 방의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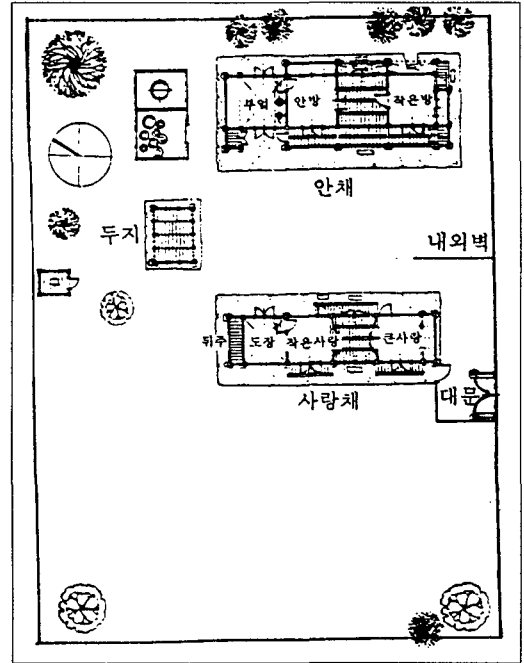


그림.19 대구 문근만 가옥 배치평면도

쪽에는 半間 규모의 온돌방과 벽장이 곽으로 시설되었다.

7) 大邱 文瑾萬 家屋(S-17, 1936년)

일제후기 富農의 주택이다. ‘ㄷ자’형의 안채와 사랑채가 안마당을 가운데 두고 앞뒤에 배치되고, 안마당 西便에 두지가 놓여 전체적으로 ‘ㄷ자’형’을 이룬다. 큰사랑방 우측에는 내외벽이 있어 사랑채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시선을 차단한다. 성리학적 윤리관에 따른 내외벽이 20세기초에도 고집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정치·사회적 변동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사회윤리의 골격은 그대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평면 구성을 살펴보면 사랑채는 정면 4간, 측면 1간의 규모로 내부공간의 분화는 크게 진

전되지 않았다. 반면 안채는 정면 4칸, 측면 1칸 반으로, 전체적으로 前後 退間이 발달하여 마루와 반침, 벽장 등의 다양한 수장공간으로 이용된다. 內部空間의 확장과 분화가 주로 退間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4. 慶北地方 近代 韓屋의 建築의 特性

4-1. 配置 및 外部空間 특성

(1) 棟 및 마당구성

1) 一體形의 棟 構成

조사한 근대한옥의 棟 구성형식은 크게 안채와 사랑채가 통합된 ‘一體形’, 안채와 사랑채가 실 내외의 매개공간을 통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리된 ‘別棟形’으로 구분된다. 조사 한옥의 대다수가 別棟形이며, 一體形의 근대한옥은 전체 17戶중 4戶(S-1,2,10,11)였다.

문헌덕가옥(S-1, 철종대)은 안채의 상방과 사랑부엌이 연결된 일체형이나 두 영역간의 공간적 독립성과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위해 사랑채와 안채의 정면을 각각 南向 또는 東向으로 배치했다. 이는 유교적 사회윤리에 따른 남녀공간의 구분, 환경적 요구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채효기가옥(S-2, 1904)은 문헌덕가옥 보다 半世紀 뒤에 지어진 ‘ㄷ자’형 집으로 대청을 경계로 남녀공간을 兩分한 형식이다. 대청에 의해 두 공간의 격리와 통합이 이루어지므로 공간의 독립성이 前者에 비해 약화되었다.

靑松 照月宅(S-10, 1872)은 1933년에 건축된 一體形 한옥으로, 사랑채 배면을 안채의 안부엌과 연결시켜 ‘ㄷ자’형을 이룬 독특한 형태로 안부엌이 두 공간의 중심에 놓였다. 남녀의 생활공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일체형임에도 사랑채 좌측면에 중문채를 만들어 두 영역을 분할한 특색이 있다. ‘ㄷ자’형의 몸체에 남녀공간이 함께 배치된 형식이 안동 김예진가옥(S-11, 일제시대)이다. 몸체를 兩分하여 동측에 부엌을 비롯한 여성공간, 서측에 사랑방 등의 남성 생활공간을 두었으며, 안방과 사랑방의 바깥 경계부에도 경계 담을 쌓고 사이에 중문을 시설

하여 마당을 둘로 구획했다. 안방 배면에 긴 마루와 후원을 둔 것은 일체형 한옥에서 결여되기 쉬운 여성 전용공간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채 정면을 안채의 시선축에서 90度 튼 것은 남녀공간의 분리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고려라 하겠다.

이처럼 경북지방 근대한옥의 일체형의 동구성에 여전히 남녀공간의 의도적인 구분이 존재했다. 이는 당시의 유교 윤리가 전시기에 비해 다소 약화된 것은 여전히 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別棟形의 棟 構成

조사 한옥 17戶 중 13戶가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된 別棟形으로, 13戶중 일제강점기 이전의 한옥이 5戶(S-3,4,5,6,7,8,9), 일제강점기 한옥이 8戶(S-12,13,14,15,16,17)였다. 모두 ‘ㄷ자’형과 ‘ㄱ자’형 한옥에서 나타났다. 괴천고택(S-3,1872)은 사랑채와 중사랑채가 T자형을 이루고, 뒤쪽에 ‘ㄷ자’형 안채가 別棟으로 배치되어 ‘ㄷ자’형을 이룬다.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가진 전통적인 棟 구성으로 공간의 性的 分離에 충실하다. 장수황씨종택(S-4,19C말)과, 김화엽가옥(S-6,1910)은 안채와 사랑채·중사랑채가 고유의 마당을 가지고 별도로 배치되었으나 종전처럼 담이나 건물로 구획하지 않아 남녀공간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반송재고택(S-5,1899)은 ‘ㄷ자’형 안채 앞에 사랑채가 가로놓인 형으로, 안마당은 건물로 위요되어 내밀하며 남녀공간은 독립적이다. 성주중매택(S-7,1903~15)은 안마당을 사이에 두고 ‘T자’형 안채와 ‘ㄷ자’형 사랑채가 떨어져 배치된 別棟形으로 남녀의 내외부공간 구분이 명확하다. 봉화 권진사택(S-9,1880)은 완전한 ‘ㄱ자’형 한옥으로 건물은 구조적으로 연결되었으나 공간적으로는 안채와 사랑채가 뜰과 고방등을 경계로 분리되어 있다. 다만 前時期 ‘ㄱ자’형 한옥보다 사랑채(부분)이 확대되고 강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랑채의 정면에 있던 중문간이 우측 익사로 이동하는 변화를 수반했다. 송고현고택(S-13, 1920)은 ‘ㄷ자’형 사랑채

와 '一자'형 안채가 앞뒤에 배치된 형태이다. 사랑채의 규모가 이전 시기의 한옥에 비해 확장된 형식으로, 사랑채 좌측에 있는 중문을 통해 안마당으로 진입한다. 안동오류헌(S-14)의 사랑채(1920년)도 규모가 매우 크고 과시적이며, 남녀들이 사용하는 내외부공간의 구분은 비교적 명확하다. 정수열가옥(S-15,1933)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직각으로 배치된 형식으로, 남녀공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고재용가옥(S-16,1933)은 대지를 3분하고 거기에 사랑채와 안채, 아랫채를 배치하고 담을 쌓아 안마당과 사랑마당 외부공간을 분리하였다. 문근만가옥(S-17,1936)은 안채와 사랑채를 '二자'형으로 배치한 별동형으로, 대문간에서 안마당을 들여다보는 외부인들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안마당 동측에 내외담을 쌓았다.

이들 근대한옥의 정면 向은 남향이나,남동향이 많은데, 이는 채광과 일사조건을 고려한 배치로 근대지향의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로 보인다.

마당의 구성방식은 대체로 분리형과 일반형, 미분화형으로 구분된다.¹⁹⁾ 분석한 근대한옥 17戶中 15戶(S-1,3,4,5,6,7,9,10,12,13,14,16,17)가 일반형으로, 이것으로 볼 때 경북지방 근대한옥에서 일반형의 마당구성형식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사랑마당의 기능과 독립성은 전 시기보다 약화되었으며, 조사 한옥의 마당구성형식을棟 구성형식과 관련시켜보면 근대한옥의 대다수가 일반형 마당구성에 안채와 사랑채가 별동으로 구성된 한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생활의 모든 기능이 안마당에 통합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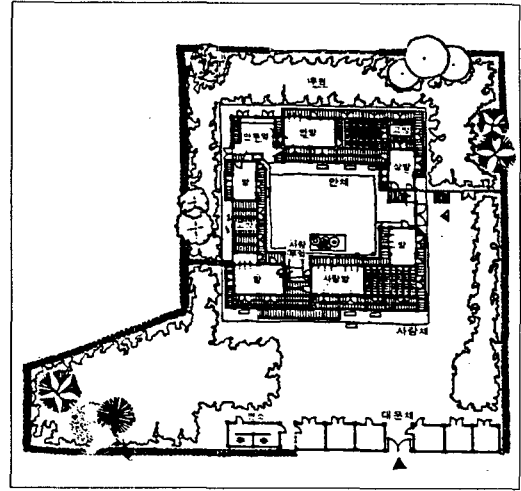


그림.20 봉화 김종환가옥 배치평면도

면서, 안마당은 주생활의 중심장소가 되었다. 주거내 중요한 부속채들이 안마당 주위에 건축되어 'ㄷ자형', 'ㄱ자형'의 배치형태를 이루었다. 이때 안마당 한편에 内外담(S-17)이나 방앗간(S-12) 등의 건물을 배치하여 외부인의 시선을 차폐하는 하기도 한다. 여전히 재래의 유교 윤리관에 따른 住文化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하 사회의 봉건적 성격과 지방의 사대부층 및 地主型 富農層이 가진 封建的 性向이 주거에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2)中門의 위치 變化와 안마당 進入型式

'一자'형 및 'ㄱ자'형 한옥의 전통적인 안마당 진입은 사랑채의 사랑부엌간에 병설된 中門을 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랑부엌의 前後面을 개방하고 거기에 안마당으로 통하는 중문(또는 안대문)을 설치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안마당 진입형식은 근대한옥에서 사랑채 측면 진입형식으로 변한다.

분석한 근대한옥 17戶 중 4戶(S-7,8,9,13)에서 사랑채 측면 진입형식이 나타났다. 'ㄱ자'형의 봉화 권진사택(S-9)은 사랑채의 사랑부엌前面을 마루방으로 폐쇄하고, 사랑채 우측 배면에다 중문을 시설한 예다. 따라서 안마당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랑채 우측면에 있는 중문을 거쳐야 한다. 백불고택 사랑채(S-8,

19)마당은 분리형과 일반형, 미분화형으로 구분된다. 분리형은 마당이 기능별로 다양하게 세분되어 있고 내외간의 장소구분이 명확하다. 일반형은 조선시대 중상류 주거의 가장 보편적인 마당형식으로, 마당은 사랑마당과 안마당으로 크게 二分되며 문간마당, 작업마당 등이 안마당에 접속되어 나타난다. 미분화형은 서민주거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으로 사랑마당과 안마당의 구분은 있으나 진입방식으로 볼 때 내외간의 구분은 이뤄지지 않는 마당형식을 말함 (최일, 조선중기 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서울대박사논문,1989,p.38-39)

일제강점기 이전 (1909년 - 1909)	<p>일체형</p> <p>안채 사랑채</p> <p>S-1. 文顯德 가옥(ㄷ자형, 칠종대)</p>	<p>일체형</p> <p>안채 사랑채</p> <p>S-2. 蔡孝基 가옥(ㄷ자형, 1904)</p>	<p>별동형</p> <p>안채 사랑채 중사랑채</p> <p>S-3. 卍軒고택(ㄷ자형, 1872)</p>
	<p>별동형</p> <p>안채 사랑채</p> <p>S-4. 長水黃氏宗宅(ㄷ자형, 1909말)</p>	<p>별동형</p> <p>안채 사랑채</p> <p>S-5. 仲松齋故宅(ㄷ자형, 1899)</p>	<p>별동형</p> <p>안채 사랑채</p> <p>S-6. 金和燁가옥(ㄷ자형, 1910)</p>
	<p>별동형</p> <p>안채 사랑채</p> <p>S-7. 성주중매택(ㄷ자형, 1903-15)</p>	<p>별동형</p> <p>안채 사랑채</p> <p>S-8. 百弗古宅(ㄷ자형, 1905사랑채)</p>	<p>별동형</p> <p>안채 사랑채</p> <p>S-9. 봉화 權進士宅(ㄷ자형, 1880)</p>
일제강점기 (1910 - 1945)	<p>일체형</p> <p>안채 사랑채</p> <p>S-10. 淸승 照月宅(ㄷ자형, 1933)</p>	<p>일체형</p> <p>안채 사랑채</p> <p>S-11. 金響鎭가옥(一자, 일제시대)</p>	<p>별동형</p> <p>안채 사랑채</p> <p>S-12. 文승기가옥(ㄷ자형, 1910)</p>
	<p>별동형</p> <p>안채 사랑채</p> <p>S-13. 松臯軒古宅(ㄷ자형, 1920사랑)</p>	<p>별동형</p> <p>안채 사랑채</p> <p>S-14. 安東五柳軒(ㄷ자형, 1920사랑)</p>	<p>별동형</p> <p>안채 사랑채</p> <p>S-15. 鄭守烈가옥(ㄷ자형, 1933)</p>
	<p>별동형</p> <p>안채 사랑채</p> <p>S-16. 高在廣 가옥(ㄷ자형, 1933)</p>	<p>별동형</p> <p>안채 사랑채</p> <p>S-17. 文瑾萬 가옥(ㄷ자형, 1936)</p>	<p>범례</p> <p>※안채와 사랑채만 圖示했음. ▲S-1~9: 일제강점기 이전 한옥 S-1-2: 안채·사랑채 一體形 S-3-9: 안채·사랑채 別棟形 ▲S-10~17: 일제강점기 한옥 S-10-11: 안채·사랑채 一體形 S-12-17: 안채·사랑채 別棟形</p>

그림 21 경북지방 근대한옥의 평면유형

1905중건)에서도 사랑부엌의 앞쪽을 폐쇄하고 거기에 마루방을 들였다. 이에 따라 중문은 사랑채의 좌측 배면에 위치한다. 이와 같은 평면형식을 김중환가옥(그림20, 1920년경, 봉화 해저1리) 사랑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랑부엌 前面으로 半間을 돌출 시켜 마루방으로 꾸며놓은 것까지 같다.

‘二자’형으로 배치된 성주중매덕((S-7)에서도 사랑채의 사랑부엌 전면을 폐쇄하고 거기에 책방을 시설해 놓았다. 이 집에서도 안마당 출입을 위한 중문간은 사랑채 좌측에 別設되어 있다. 송고헌고택(S-13)에서도 ‘ㄱ자’형 사랑채의 사랑부엌 前面은 마루로 폐쇄되었고 중문은 사랑채 좌측에 別設되어 있다. 이러한 안마당 진입방식과 중문위치는 사랑채 사랑부엌의 앞뒤가 개방되어 안채로 출입하는 중문간으로 이용되던 前時期 한옥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사랑부엌의 용도를 한정하고 중문간을 別設하는 사랑채 평면 구성방식의 변화가 안마당 진입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이같은 중문(중문간) 구성방식의 변화는 사랑채 규모 확대와 정면성 강조에 유용한 방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중문이 사랑채의 좌측 또는 우측에 나란히 위치하거나, 아예 없는 한옥도 있다. 사랑채 측면에 중문이 위치하는 한옥으로 반송재고택(S-5,16)이 있다. 미분화형의 마당 구성형식을 보이는 한옥(S-2,6,12,15,17)에는 중문이 설치되지 않았다. 그중에서 문승기가옥(S-12), 문근만가옥(S-17)의 경우 대문간이 사랑채 우측에 위치함에 따라 안채 출입을 위한 중문의 기능도 동시에 갖는다. 이러한 진입방식은 남녀의 동선을 외부에서부터 구분한데 특색이 있다.

대체로 각 棟으로 진입하는 남녀의 동선은 후대로 갈수록 내외구분이 약화되어 안마당으로 진입하는 동선이 사랑마당과 사랑채의 정·측면을 따라 진입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4-2.平面類型 및 特性

(1)안채

안채는 정면 5~7칸, 측면 1~2칸으로, 대청을 가운데 두고 좌측 또는 우측에 안방과 부엌을 두고 그 반대편에 온돌방과 마루를 둔 남부형의 평면형식이 많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완전한 겹집(S-6,11,14,16), 부분적인 겹집화²⁰⁾(S-1,4,5,9), 전후 퇴간의 발달(S-2,3,6,7,10,12,13,15,17), 다양한 수장공간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가사운영이 직계가족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생활의 합리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근대적 사고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엌을 중심으로 한 집약적인 공간구성이 돋보인다. 성주중매덕(S-7)은 찬방 앞마당을 중심으로 찬방과 뒷마루, 안방과 뒷마루 및 부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사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동선과 室의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안채 평면을 계획한 것으로 근대한옥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공간구성은 전술한 1930년대 생활개선운동에서 찬방(찬마루)를 중심으로한 부엌의 구성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부엌을 중심으로 한 집약적인 室구성은 장수황씨종택(S-7)에도 보인다.

반송재고택(S-5)의 건넌방 앞에 놓인 마루방과 祭廳房은 1900년대 전후한 시기의 한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유교윤리가 확산되면서 祭禮, 喪禮空間이 주거공간에 나타나는바 사랑채에는 감실과 감실방이 나타난다. 유교윤리의 확산과 형식화 등의 당시 사회문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2)사랑채

사랑채의 규모는 평면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개 정면이 5칸~7칸, 측면은 1.5~3칸 정도였다. 別棟形의 사랑채는 대개 안채보다 큰 규모이다. 사랑채의 평면은 겹집 또는

20)김태영은 일제하 지방도시의 겹집형 평면의 전통한옥은 洋館과 日式 田家형 木造聯立住宅에 일부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김태영, 일제강점기의 외인관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9권7호, 1993.7.p.88)

안채와 마찬가지로 전후퇴가 발달된 형식이며, 후퇴보다는 전퇴의 폭이 넓다. 주로 후퇴에는 반침이나 벽장을 비롯한 수장공간, 祭禮空間인 壁龕이 주로 시설되거나 室面積의 확대 요구를 수용하여 방이 놓인다. 특히 장수황씨종택(S-4), 김화엽가옥(S-6), 봉화권진사택(S-9), 김예진가옥(S-11), 문승기가옥(S-12), 안동오류헌(S-14)의 사랑채는 완벽한 겹집으로 내부공간의 분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안동오류헌(S-14) 사랑채의 평면구성은 매우 독특한 것이다. 즉 수장용의 마루방, 안채로 출입하는 홀(hall)의 기능을 갖는 셋마루와 셋방, 의례공간인 감실과 감실방 및 冊房의 구성은 근대 한옥 사랑공간의 집약 및 분화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또한 사랑채 배면에 뒷방과 뒷마루 등을 배치하여 안마당과의 완충공간을 형성하기도 하고 사랑방 옆에 책방을 설치하기도 했다. 사랑방에 접한 사랑마루방이나 후퇴에 벽감을 둘 감실을 배치하여 사당을 別棟으로 두는 번거로움을 줄이기도 했다.

4-3. 建築材料 및 立面構成上的 변화

창유리가 채광재로 사용되면서 마루 전면에 유리창이 시설되었다. 정수열가옥(S-15)은 안채 마루와 뒷마루 사이에 유리 미서기 문을 달았으며, 그 위에는 환기를 위해 유리로 된 高窓을 달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高窓은 환기용으로 문근만, 문승기가옥 사랑채에서도 나타난다.

재료면에서는 굴뚝과 지붕 박공벽, 마루 하부의 고맥이벽 등에 적벽돌이 많이 사용되었다. 송고헌고택(S-13)의 사랑채 뒷마루 하부 적벽돌 영롱쌓기, 지붕 합각부 적벽돌 쌓기(S-15) 및 굴뚝 적벽돌쌓기(문승기·문근만 가옥) 등은 전시기 한옥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적벽돌의 사용이 확산되는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온돌설비에 대한 고려도 증대하여 안채와 사랑채의 온돌방에서 나오는 연기를 통합하여 배연하기 위해 안마당에 적벽돌로 굴뚝을 축조하

였다(S-12). 안동오류헌(S-14)에서도 굴뚝 하나로 사랑채의 온돌방에서 나오는 연기를 한데 모아 배출되도록 했다. 집약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설비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근대지향의 住意識이 반영되었음을 보여준다.

김예진 가옥(S-11)의 治木手法과 日式 세살문 살 짜임에서 日式 주거건축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성주중매택(S-7)의 안채 뒷마루 상부 반자와 같이 처마도리의 높이에 맞추어 板子로 평반자를 구성한 것도 이시기 한옥의 새로운 모습이다.

5. 結

개항후 1945년까지의 근대기에 지어진 근대한옥은 배치와 평면구성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경북지방의 근대한옥을 대상으로 정치, 사회 문화적 변화를 거치면서 근대한옥 배치와 평면구성 및 입면의 변화를 고찰한 것으로 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경북지방 근대한옥의 안채와 사랑채의棟 및 마당구성은 크게 一體形과 別棟形으로 나뉜다. 一體形과 같이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이 한棟에 통합된 경우에도 여전히 남녀공간을 구분하였으나 前時期보다는 다소 약화되었다. 일체형에서는 남녀공간의 독립성을 얻기 위해 정면을 직각으로 틀어 배치했다. 別棟形은 一體形보다 내·외부의 남녀공간 구분이 명확하여 사랑채와 안채 사이를 담이나 건물, 내외담으로 구획했다. 이는 당시에 유교윤리가 다소 약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住生活 전반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분석한 근대한옥의 대부분은 남향이나 남동향을 선호했는데, 이는 안채와 사랑채의 양호한 채광과 일사조건을 고려한 배치계획으로 근대 지향의 성격이라 하겠다. 그리고 주거내 각棟은 가급적 근접 배치되었으며, 마당의 구성형식은 一般形이 가장 많았다. 주거의 기능이 안마당으로 통합되면서 사랑마당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內外區分을 위한 상징적인 공간의 성격을

나타냈다.

둘째, 中門의 위치와 안마당 진입형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19C말부터 20C초에 건축된 '口자'형 또는 '튼口자'형의 경북지방 근대한옥에서 中門은 사랑채 좌우측 배면에 別設되어 있다. 이는 사랑채의 사랑부엌을 앞뒤로 개방하여 안마당으로 출입하는 中門(間)으로 이용하는 전통적인 진입방식과 크게 다른 것이다. 사랑부엌의 용도를 한정하고 중문간을 別設하는 사랑채 평면 구성방식의 변화는 사랑채의 규모확대와 正面性 강조에 매우 유용했다. 이것은 또한 사랑채 측면을 통한 안마당 진입방식을 가져왔다.

셋째, 평면구성에서 안채와 사랑채는 대부분 前後退가 발달하였으며, 완전한 겹집의 평면형을 이루기도 했다. 주로 前退에는 개방된 뒷마루가 놓여 동선상의 轉移空間으로 사용되고, 後退에는 반침이나 벽장을 비롯한 收藏空間이 주로 시설되거나 室面積의 확대 요구를 수용하여 방으로 구성된다. 생활동선과 가사노동을 절감하는 부엌 중심의 공간구성, 사랑채 기능의 복합화와 집약화 등에서 한옥의 근대적인 성격을 볼 수 있다. 이것은 家事運營이 直系家族 중심으로 바뀌면서 생활의 합리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근대적 사고가 주거공간 구성에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넷째, 19세기말 이후 건축된 경북지방 근대한옥에는 유교적인 의례를 집행하는 專用空間이 나타났다. 喪祭禮의 의식을 치르는 안채의 祭廳房과 위패를 보관하고 제례를 지내는 사랑채의 龕室과 龕室房이 그것으로 유교윤리의 확산과 형식화 등에 의해 발생한 공간이었다. 이것은 근대기에도 한옥이 유교적인 가정 및 사회윤리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창호는 머름이 없거나 큰 문틀에 키 큰 창호가 많이 사용되고, 채광을 위한 유리창이 마루 앞쪽에 시설되면서 마루의 실내거실화와 입면상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창 상부에 채광용의 긴 고정창과 환기창이 설치되었으며,

재료면에서 굴뚝과 지붕 박공벽, 마루 하부를 쌓는데 적벽돌을 사용했다. 또한 안채와 사랑채의 온돌방에서 배출되는 연기를 통합하여 배연할 굴뚝을 축조하는 등 집약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설비개념이 도입되었다. 治木手法과 문의 살 짜임, 미장목이나 판자를 사용한 일부분의 평반자 구성 등에서 日式 주거건축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일부 근대한옥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보다 많은 근대한옥을 실측 조사하여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근대한옥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大邱市史編纂委員會, 『大邱市史, 제4권(전통 건축)』, 대구시, 1995
2. 김홍식, 『민족건축론』, 한길사, 1987.
3. 장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4. 윤일주, 『洋式建築 80年史』, 야정문화사, 1965
5. 김봉렬, 『조선후기 한옥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2
6. 연세대 주생활학과 대학원 동창회, 『한국주택자료집』, 1995
7. 김순일, 『開化期 住意識에 관한 연구』, 『건축』, 제26권 106호, 1982.
8. 주남철, 『李朝末부터 1945년까지의 한국의住宅變遷』, 『건축』, 제38호, 1970.
9. 윤도근김란기, 『日帝의 住居政策과 그 遺産에 관한 研究』, 『홍대논총』, 제19집, 1988.
10. 송인호, 『도시형 전통주거의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보고집』, 제4권1호, 1988.
11. 신재익·최일, 『전통 주거건축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보고집』, 1990, 제6권 4호.
12. 이호열외, 「근대한옥의 탐색.1」, 『월간 홈인테리어』, 1995.3.
13. 이호열외, 「근대한옥의 탐색.4」, 『월간 홈인

테리어』,1995.6.

- 14.이호열,『대구지방 근대한옥에 대한 조사연구』,영남건축의 재조명,한국건축역사학회 95 정기 학술발표대회 논문집,1995.10.28,pp.127~158
- 15.宋建鎬의,『解放前後史의 認識』,한길사,1980
- 16.강만길,『韓國近代史』,창작과 비평사,1985
- 17.한국역사연구회편,『한국사 강의』,제2판,한울아카데미,1991.
- 18.김태영,『일제강점기 지방도시의 外人館 연구』,1993.7,대한건축학회 논문집9권 7호.
- 19.김성우·윤동근『서울 四大門內의 전통도시 한옥주거지에 있어서 근대적 변화의 초기성격』,1997.1,대한건축학회 논문집,13권1호.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Houses in Modernization Period(1876-1945) in *Kyungpuk* Province

-Mainly about the Patterns of Site Plan and Plan Layout-

Lee Ho Yeol

(Associate professor, Miry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researched mainly about the gradual changing patterns of site plan and plan layout of 17 sampling traditional houses in *kyungpuk* province during the time period of 1877-1945.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losely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locality and trend of the times. Survey and Measured drawing, personal interviews with clients has been carried out and the result is as down below;

1.The certain changes have shown that the furnace in *sarangchae*(outer wing for men) in □ shaped and 『』 shaped houses served only for that purpose and inner gate has been built in sideward of *sarangchae*.

2.As living standard was upgraded storage space and size of the rooms got bigger. On the other hand, spacial formation was emphasized by its function accordding to house activities and living circulation because the family members in direct line became reality of the time.

3.The modernistic thought of rationalism and convenience are well expressed in the plan layout and house living as a whole.